5월 4주차 |

주간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 및 이슈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5.21	5.14	전주대비(%)	전년말 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283.93	1,266.36	↑ 1.39	↑ 16.31	785.17 '20/07/27	1,283.93 '21/05/21
인니	자카르타종합	5,773.12	5,938.35	↓ -2.78	↓ -3.44	4,545.95 '20/05/21	6,435.21 '21/01/13
인도	SENSEX	50,540.48	48,732.55	↑ 3.71	↑ 5.84	30,609.30 '20/05/26	52,154.13 '21/02/15
중국	상해종합	3,486.56	3,490.38	↓ -0.11	↑ 0.39	2,813.77 '20/05/22	3,696.17 '21/02/19
	심천종합	2,319.79	2,293.87	↑ 1.13	↓ -0.41	1,750.82 '20/05/25	2,468.66 '21/02/19
홍콩	H	10,702.57	10,404.95	↑ 2.86	↓ -0.33	9,281.52 '20/09/29	12,228.63 '21/02/17
	항셍	28,458.44	28,027.57	↑ 1.54	↑ 4.51	22,930.14 '20/05/22	31,084.94 '21/02/17
한국	KOSPI	3,156.42	3,153.32	↑ 0.10	↑ 9.85	1,970.13 '20/05/22	3,249.30 '21/05/10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5.21	5.14	전주대비(bp)	전년말 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37	2.40	↓ -3.10	↓ -21.10	2.16 '21/01/19	3.20 '20/05/28
인도네시아	6.46	6.43	↑ 3.00	↑ 57.50	5.89 '20/12/30	7.54 '20/05/21
인도	5.98	5.99	↓ -0.90	↑ 11.20	5.75 '20/05/28	6.25 '21/03/10
중국	3.07	3.14	↓ -6.50	↓ -7.50	2.58 '20/05/22	3.36 '20/11/19
한국	2.12	2.16	↓ -3.80	↑ 39.50	1.28 '20/07/30	2.16 '21/03/18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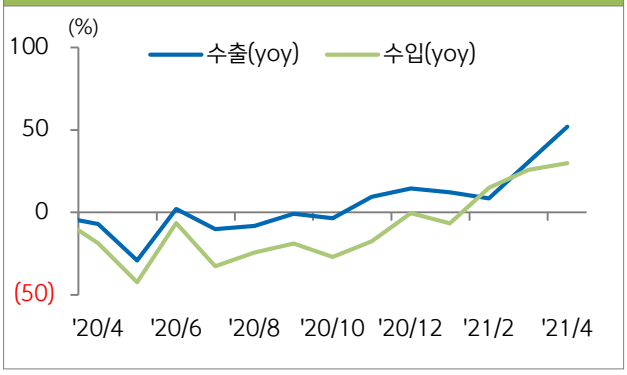
구분	5.21	5.14	전주대비(%)	전년말 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3,052.00	23,040.00	↑ 0.05	↓ -0.20	22,970.00 '21/02/08	23,326.00 '20/05/27
달러-루피아 (IDR)	14,355.00	14,198.00	↑ 1.11	↑ 2.17	13,878.00 '20/06/05	14,900.00 '20/09/28
달러-루피 (INR)	72.84	73.29	↓ -0.62	↓ -0.32	72.33 '21/02/24	76.21 '20/06/16
달러-위안 (CNY)	6.43	6.44	↓ -0.05	↓ -1.43	6.42 '21/05/10	7.17 '20/05/27
달러-원 (KRW)	1,126.89	1,128.54	↓ -0.15	↑ 3.72	1,081.81 '20/12/04	1,243.91 '20/05/25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4월 인도네시아 무역수지. 지난해 기저효과 제외하더라도 큰폭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흑자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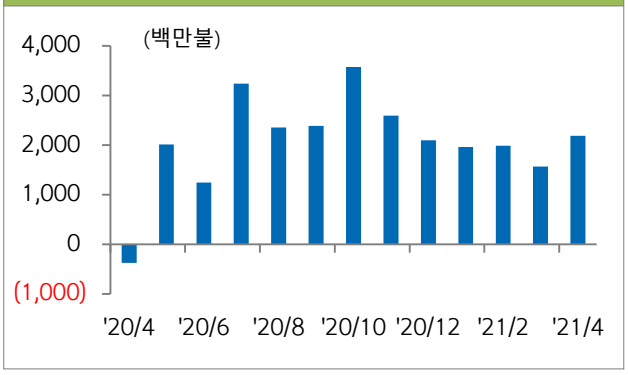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의 4월 수출은 전년대비 +51.9%, 수입은 전년대비 +29.9%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코로나 확산이 글로벌 전반으로 확산되고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한편, 루피아화가 달러당 16,000루피아를 넘어서는 등 금융시장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수요가 급감하였던 지난해 4월의 기저효과의 영향도 있지만 수출금액이 184.8억 달러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1년 8월 186.6억 달러의 월간 수출을 기록한 이후 10년만에 가장 큰 규모임.
- 4월 중순부터 라마단이 시작되면서 라마단 기간 中 수출입의 계절적 부진이 나타나는 인도네시아이지만 올해의 경우 수출이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경기의 회복에 따라서 각종 원자재 및 소재, 산업재의 숏티지가 일어나고 있어 필요한 수요를 사전적으로 채워놓으려는 수입국들의 당겨오기 수입이 이뤄진 영향으로 판단됨
- **4월 무역수지는 2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11개월 연속으로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이에 따라 연초 이후 누적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77.1억 달러 까지 증가. 이러한 무역수지 흑자에 힘입어 **4월 인도네시아 외환보유고는 전월대비 17억 달러 증가한 1,388억 달러를 기록하여 연초대비 29억 달러 증가한 상황**
- 중국 정부가 과도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상해선물거래소에서의 증거금을 상향 조정하면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석탄, 철강 등은 증가하고 있는 중국 내수 수요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으로 증산 및 수출 제한(증치세 폐지, 수출 관세 인상) 등을 진행하는 상황. 중국 정부의 조치로 금속광물 중심으로 가격이 조정을 보이고 있으나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할 만큼 실물 수요가 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한 상황.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양호한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환율도 안정적 흐름이 기대됨**

인도네시아 전년대비 수출입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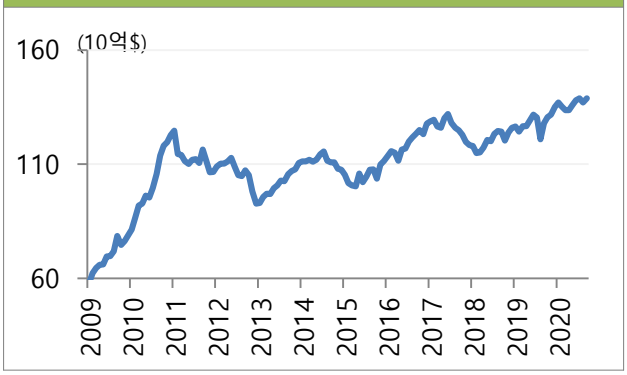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인도네시아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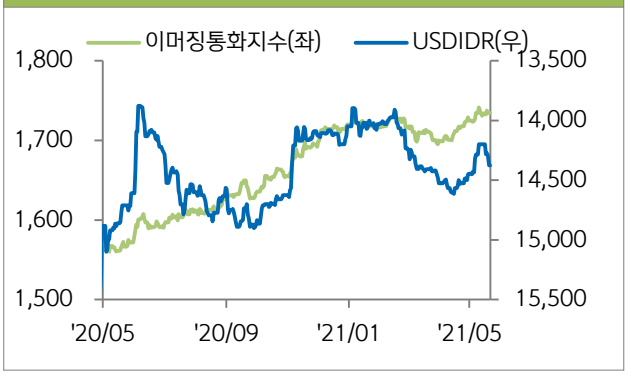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인도네시아 외환 보유고 추이



자료 : Bloomberg

인도네시아 루피아 환율 추이



자료 : Bloomberg

주요 뉴스

인도네시아 정부와 의회,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시작

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 요약 및 시사점

경제 조정 장관은 조코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의회에 세법 개정과 관련한 내용을 요청하였으며, 의회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탄소세, 세금 사면 조치 등 종합적인 세금 부과에 대한 내용을 개정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의회는 올해 연간 입법 사항 중 우선 법안으로 상정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의회에 일반세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세법 개정의 방향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들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조세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임.
- Airlangga Hartarto 투자조정장관은 지난 5/19에 조코위 대통령이 의회쪽으로 1983년 일반세법에 대한 5번째 개정 작업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음. 장관은 해당 개정 요청에 담긴 내용이 부가가치세, 개인 소득세, 사치세, 통관세 등을 개정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며, 탄소세 도입 및 두번째 세금 사면 조치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음. 장관은 의회와 논의해야 될 의제가 많이 있긴하지만, 논의가 빠르게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음. 의회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올해의 국가 입법 프로그램(Prolegnas)에 포함시켜서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았음.
-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GDP대비 낮은 세수수입을 조정하기 위해서 세수 기반을 넓히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Netflix 등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적용하면서 함께 추진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동안에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세금 혜택들을 제공했는데,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춘다던 지의 조치를 진행하였음. 28만 6천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총 14.95조 루피아(10.3억 달러) 규모의 세금 혜택을 1~3월 사이에 누린 것으로 재무부에서는 추정하고 있음.
-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조업, 무역업 및 서비스 부문으로부터 더 많은 세수 수입을 얻어내기 위해서 상품 및 서비스세(GST)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음. GST의 세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될지 정하진 않았으며, GST 도입 여부부터 먼저 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세부적인 세율 등은 의회에서 결정될 것임.

(출처 : Jakarta Post)

인도네시아, 2022년에는 새로운 세법으로 세수 개선 계획

MINISTRY OF FINANCE
REPUBLIC OF INDONESIA

❖ **요약 및 시사점**

재무부는 2022년 예산안을 구성하기 전에 세법 개정과 관련한 내용을 의회에서 검토하여 세수 기반을 넓히고, 이를 통해 재정적자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GDP대비 재정적자 3%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제 개혁도 동반되야 한다는 입장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의회에 세금 정책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개정안을 요청하였으며, 이것은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방안이기도 하다고 재무 장관이 말하였음.
- 의회에 제시된 안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서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세율을 급격히 높이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있는 상황임.
- 재무장관은 경제 회복을 재정 정책에 있어 최우선으로 하되, 구조적인 세금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세금 개혁을 통해서 세수 저변을 넓히고, 부가세 개선 등을 포함한 세수 수입의 새로운 원천을 찾아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 세제 개편은 현재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고 있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을 높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현지 언론에서는 보도되고 있음. 재무장관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재무부 담당자 측에서도 회신을 하지 않았음.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2년에 플라스틱 수입에 대한 세금 부과 등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관세청은 아직 검토중이라고 답변하였음.
- 재무장관은 2022년 인도네시아의 재정 지출은 대략 GDP의 14.7~15.3% 수준으로 하여, 재정적자 규모는 GDP대비 4.51~4.85% 수준으로 올해 5.7%보다 줄이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하였음. 2022년 예산안을 위한 기본 경제 가정에서는 GDP성장률 5.2~5.8%로 올해의 5%보다 개선되는 방향으로 잡고 있음.

(출처 :The Star)

Gojek과 Tokopedia, 서비스 통합 통해 GoTo Group 발표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최대 스타트업인 Gojek과 Tokopedia가 합병을 하면서 동남아시아 거대 테크기업이 탄생하였음. 경쟁자인 싱가포르 Grab이 나스닥상장을 준비하면서 경쟁의 강도가 격해지는 것에 맞서 GoTo Group의 형성으로 서비스 및 커버리지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됨

- 인도네시아의 거대 스타트업인 Gojek과 Tokopedia가 그들의 서비스 통합을 통해 GoTo Group을 형성한다고 발표하였음. 지난주 월요일(5/17) Gojek의 공동CEO인 Andre Soelistyo가 해당 Group의 CEO를 맡게 될 것이고, Tokopedia의 대표(President)인 Patrick Cao는 Group의 대표를 맡게 된다고 발표되었음. 한편, Kevin Aluwi와 William Tanuwijaya는 각각 현재의 개별 회사 CEO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음.
- 이러한 통합을 통해서 Gojek의 협력 드라이버들은 Tokopedia의 사용자로 부터 접수되는 더 많은 주문들을 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협력 판매자들은 그들의 사업을 더 큰 규모로 키울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GoTo group의 형성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시아 시장에 더 많은 GoTo Financial이라는 방법으로 금융서비스도 제공하게 될 것임
- GoTo는 각사가 운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상품 배달, 운송 및 금융서비스 등의 영역에 대해 합병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장래에 GoTo Group은 인도네시아 GDP의 2%를 넘어서는 기여를 할 것이며, 더 많은 일자리와 소득의 기회를 사업 성장을 통해서 제공해갈 것이라고 포부를 나타냈음.
- 지난해 GoTo Group은 총거래가치(GTV:Gross Transaction Value) 기준으로 220억 달러 규모를 달성하였으며, 2020년의 거래 회수는 22만회에 달했음. GoTo Group을 이용하는 월간 활성 이용자숫자는 1억명에 달하고 있음.
- 알리바바그룹이나 아스트라인터내셔널, 구글, 징둥닷컴, Telkomsel, 테마섹, 텐센트, 페이스북, 페이팔, 소프트뱅크비전펀드1과 같은 투자자들이 GoTo에 투자하여 지지하고 있으며, Gojek이 이미 진출해 있는 주변 여러 나라들로 GoTo Group의 확장해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음.

(출처 :Antara News)

5월 중순까지, 경제회복 예산 집행규모는 172.35조 루피아 수준

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 **요약 및 시사점**

연간 국가 회복 예산 가운데 5월 중순까지 집행률은 24% 수준으로 기간 진도율 대비 낮은 수준의 집행률을 보였지만 사회보장 및 중소기업 사업 인센티브 제공 등의 부분에서는 높은 집행률을 나타내였음. 최우선적으로 국민 생계 및 기업활동 유지 등에 초점을 맞춰 예산집행이 이뤄지고 있음

- 5/11까지 인도네시아 국가 회복 예산(PEN)의 집행 규모가 172.35조 루피아 수준이라고 경제조정장관은 발표하였음.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핵심 내각 회의자리에서 장관은 2021년 1분기말에 대비하였을 때 49.01조 루피아의 금액이 추가로 집행되었다고 발표하였음. 올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잡아둔 국가 회복 예산 총 금액은 699.43조 루피아로 5/11까지의 집행률은 24% 수준이라고 밝혔음.
- 예산 집행은 보건 분야에 24.9조 루피아(연간 총 배정금액 175.22조 루피아의 14.2%)를 집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부문에 사용되었음. 사회 보장 부문에 56.79조 루피아(연간 배정액 150.28조 루피아의 37.8%), 최우선 집행 분야 프로그램에 21.8조 루피아(연간 배정액 123.67조 루피아의 17.6%)가 사용되었음
- 중소기업 및 법인에 대한 지원예산 193.5조 루피아 가운데 21.7%인 42.03조 루피아가 5/11까지 집행되었고, 사업 인센티브에 배정된 56.72조 루피아는 47.3%인 26.83조 루피아가 집행되었음
- 사회 보장 부문에 집행된 규모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가족희망 프로그램(PKH)에 배정된 연간 예산 28.71조 루피아 가운데 48.19%인 13.8조 루피아가 집행된 점에 대해서 경제조정장관은 식료품 및 현금 보조 등을 통해 사회 취약 계층들에게 필요한 금액들이 빠르게 집행되었다고 강조하였음.

(출처 : Antara News)

Mandiri,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에 긍정적 추세가 보인다고 평가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의 거대 은행 중 하나인 Mandiri 은행은 인도네시아의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 부양과 양호한 원자재 가격에 힘입은 수출 개선, 그리고 소비,투자심리지표의 개선을 감안할 때 회복세가 완연해질 것이라고 평가하였음

- Mandiri 은행은 2021년 1분기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0.74%를 기록하였지만 회복세의 긍정적인 흐름이 보인다고 웹세미나를 통해 평가하였음. 경제 회복의 흐름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본 지출을 통해서 부양책을 지속하는 것과,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는 것에 힘입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음. 여기에 더해 경제 환경에 대해서 3~4월까지 대중들의 경제 개선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음.
- 2021년 4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기준치인 100을 넘어서면서 낙관적인 수준으로 다시 올라섰는데, 이것은 인도네시아의 소비자들이 경제 환경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구매 횟수나 거래 금액을 키워가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고 하였음.
- 투자 부문의 경우에도 원자재 및 자본재의 수출이 각각 전년대비 10.2%, 11.5% 증가하면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되었음. 2021년 1분기의 외국인 직접투자도 전년대비 14%의 증가율을 보여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음.
- 소비와 투자의 회복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향후 경제 회복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올해의 연간 성장은 + 성장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평가하였음.

(출처 : Antara News)

경제금융개발연구소, 올해 2분기 인도네시아 성장률 2% 수준 예상

INDEF Institute for Development of Economics and Finance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경제금융연구소에서는 정부의 2분기 7% 성장 예상이나 다른 기관들의 4~5%대 성장 예상과 달리 전년대비 2% 성장 수준을 전망하면서, 정부가 코로나19 통제를 더욱 주의 깊게 하면서 재정 지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 경제금융연구소의 Bhima Yudhistira 교수는 2021년 2분기 인도네시아의 성장률이 전년대비 +2%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음. 그는 인도네시아가 + 성장률로 전환되는 것을 통해서 경기 침체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 추세로 들어간다고 보았음.
-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회복과, 양호한 수출, 그리고 각 지역에서의 사업 환경 등이 코로나19 확진자수 감소에 맞춘 이동 제한 점진적 해제를 통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 그러면서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이 다시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백신 접종 속도도 더욱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많은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지역들을 다시 개방하고, 쇼핑센터들이 더 많은 이용자들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들이 르바란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더욱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지출 수준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하였음. 그러면서 정부가 빠른 집행이 필요한 데도 연말이나 되어서야 제대로 집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향 방문 등이 제한되면서 관련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 하고 182조 루피아 가량의 지역 정부 자금이 은행에 잠들어 있으며, 이로 인해서 대형 도시들과 지방 간에 경제 회복에 대한 체감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출처 : Antara News)

인도네시아 대사관-파키스탄 업체, 상호간 거래 강화관련 MoU 체결

❖ **요약 및 시사점**

재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는 파키스탄의 수출입거래 플랫폼과 MoU를 체결하고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하였음. 민간차원의 협력을 확대하는 차원임

-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파키스탄의 전자상거래 기업 E-Commerce Pvt Ltd.는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사이에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에 협력하는 내용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음. 해당 MoU에는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파키스탄 전자상거래기업이 상업적인 무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형성함으로써 상호간 무역을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Ecombri.com이라는 이름의 이 플랫폼은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의 수출입업자들을 연결하여서 섬유, 식료품 가공, 농업생산품, 인프라 개발, 화학 및 제약, 철광석, 철강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간 무역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이 될 것임.
- 주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대사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무역, 관광, 투자 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이벤트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러한 프로모션 이벤트와 활동과 별개로 대사관은 몇몇 지역 대학들과 협력하여 문화 외교활동도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음.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사이에 상호간 이해의 폭을 늘리고, 지난해 25억 달러 수준이었던 상호간 무역 규모도 늘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Ecombri.com의 공동 설립자인 Muhammad Uzair Nizam은 Ecombri.com이 파키스탄의 최초이자 최대 온오프라인 연계 사업 플랫폼으로써 판매자들과 구매자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게 만들어서 구매 활동을 간소화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음.

(출처 : Antara News)